

### 모든 중생이 부처로 태어납시다

■ 법전 스님 조계종 종정



오늘은 부처님이 미완의 여래로 태어나서 해탈의 길을 열고 우리 곁에 오신 날입니다. 무생한 삶은 자재하여 오고 감이 없으나 법신은 불멸하여 온 누리에 그 모습을 나눕니다. 찾으면 은연자재하여 엿볼 수가 없고 모든 곳에 응하나 텅 비어 공적합니다. 미오의 근기에 따라 차별을 일으키지만 여러분 앞에 본체의 기운을 드러내놓고 있습니다. 무명 속에 부처를 빛어내는 밝은 길이 있고 번뇌 가운데 열매에서 벗어나는 깨달음이 있으니 눈앞에 있는 모든 생명이 법신의 구현체요 여러분이 불조대기를 구축한 미륵의 현신입니다. 본래는 범부도 성인도 아니고 이롭도 없었으나 어둠에 미혹하여 중생이 되고 부처가 되었으니 오늘은 열매에서 벗어나 무위진인을 이룩하여 모든 중생이 부처로 태어납시다.

### 생명 가치 실현하신 부처님

■ 도용 스님 천태종 종정



이 얼마나 위대한 일인가. 고귀한 생명의 가치를 선언하고 실현하신 부처님 오심이어.

봄의 설렘 속에 피어오른 새 잎들이 푸른 물결 되어 함께 노래하네.

삼라만상 모든 존재 서로 서로 의지하듯, 좋은 인연 맺으면서 봄축의 기쁨 나눌지니 실의와 아픔에 빠진 이들을 위해 기도하고 길을 잃고 헤매는 이들을 위해 등불을 밝히라.

기도하고 노력하지 않으면 기쁨을 얻을 수 없고 밥 흘리지 않으면 그 열매를 맺을 수 없으니 천지에 바람 불지 않으면 꽃이 피지 않고 찬 이슬이 없으면 결실을 얻을 수 없느니라.

### 지혜와 자비 충만하길 기원합니다

■ 효강 종령 불교총지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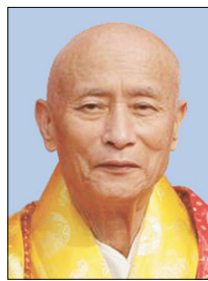


부처님 오신 날을 맞이하여 불자여러분들께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가 충만하길 기원합니다. 2500여년 전 부처님께서 우리에게서 무명을 벗기고 고히에서 벗어나도록 만고불변의 진리를 가르쳐주셨습니다. 수많은 세월 동안 많은 사람들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살면서 마음의 평화를 얻었습니다. 그 가르침이 오늘도 이어져 우리들은 연등을 밝히고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나타신 뜻을 다시 새기며 부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부처님의 가르침은 아시아를 벗어나 온 세계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혜를 강조하는 불교의 보편적 진리성과 인종과 민족을 초월한 조곤 없는 자비심의 확대에 힘입은 것입니다. 인류가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세계는 미신과 맹신을 버리고 부처님의 가르침에 더욱 의지해야 할 것입니다. 부처님의 훌륭한 가르침이 더욱 펼쳐져 온 인류가 전쟁과 테러의 위협에서 벗어나고 빈곤과 기아의 공포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불자들의 노력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 부처님의 가피 늘 함께하길 축원

■ 인공 스님 태고종 총무원장



불기2554년 부처님 오신날을 맞이하여 온 누리와 시방법계에 부처님의 자비광명이 가득하기를 기원하며 국민 모두와 불자여러분의 가정에 부처님의 가피가 늘 함께 하기를 축원 드립니다.

부처님께서는 자비와 지혜의 빛으로 일체중생의 행복과 영원한 자유의 진리를 깨우쳐 주시고자 우리 곁에 오셨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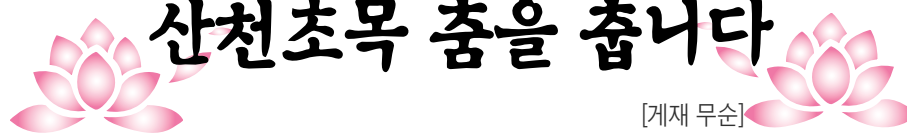
사바세계가 결코 괴로운 세계가 아니요 무한한 가능성이 있는 세계임을 정각으로 증명하시며 참된 진리의 세계를 열어 보이시고 깨달아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깨달음의 길은 결코 멀리 있지 않습니다. "보살은 본래 병이 없으나 중생이 병들기 때문에 보살도 병이 든다"는 유마거사의 말씀처럼 타인의 고통이 나의 괴로움과 다르지 않다는 자비의 마음을 실천하고 삶의 순간마다 깨어 있는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는다면 마침내 깨달음은 우리를 찾아올 것입니다.

## 꽃비 내리고

# 산천초목 춤을 춥니다

[계재 무순]



### 부처님은 늘 계시니 멀리서 구하지 말라

■ 관음종 종정 죽산 스님

부처님의 광명이 모든 나라와 일체중생을 비추니 사방세계 어느 곳에 어두운 곳이 없으라. 사람들 각각 스스로의 등불을 지녔으니 어찌 해와 달을 기다려 앞을 찾으랴. 부처님은 영산에 늘 계시니 멀리서 구하지 말라.

영산은 어디에 있는가 중생들 마음속에 있느니라. 마음이 깨끗하면 여래가 절로 나타나니 물이 맑고 밝으면 해와 달이 선명히 비추니라.



### 희망과 자비가 가득하길 서원합니다

■ 진각종 총무원장 혜정 정사

불기2554년 부처님오신날을 맞이하여 만나는 사람마다 복과 지혜가 넘치고 희망과 자비가 가득하길 서원합니다.

석가모니 부처님은 일체 중생을 위하여 심인의 참된 마음을 전하고자 이 곳, 사바세계에 오셨습니다.

심인의 참된 마음은 집착의 어리석음을 깨치는 광명의 지혜이자, 나눔을 실천하는 무량 불변의 자비심이며, 실천을 이끄는 용맹심입니다. 불자 여러분, 지혜와 자비 그리고 용맹의 마음가짐은 자신을 바로 세우는 수행의 근본이자, 인류 미래를 이끌 희망찬 기운입니다.

그 기운은 시방삼세 두루하여 없는 곳 없어,

일체유정을 이익케하고 안락케 하는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그리고 그 기운을 내어 쓰는 주인은 바로 여러분입니다.



불자여러분, 해마다 찾아오는 부처님오신날은 날마다 나의 몸과 입 그리고 마음속에 변하지 않는 자성법신의 모습으로 항상 우리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를 깨달아 일체중생의 삶이 지혜로운 행동과 바른 말 그리고 진실한 생각으로 넘쳐 복과 지혜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성불하십시오.

### 대자비 광명이 항상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 불교총지중 지성 총무원장

시방삼세에 두루하신 법신 부처님께 귀의 합니다.

무중생들을 위해 깨달음의 문을 열어 보이시고 인도하신 부처님 탄신일을 맞았습니다. 불자 된 한 사람으로서 그리고 깨달음을 궁구해 나아가는 수행인으로서 부처님 오신날을 경축해 마지 않습니다.

우리가 인간의 몸을 받고 부처님 법을 만남은 큰 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람으로 태어났기에 고통이나 욕락에 떨어지지 않고 수행을 할 수 있고, 부처님의 정법을 바탕으로 깨달음의 길로 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진리 당체로서의 부처님은 허공중에 편재충만하지만 미처 깨닫지 못한 우리네 범부중생들에게는 2500여년 전 역사상 실재하셨던 석가모니 부처님의 발자취를 좇는 마음이 각별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와 같은 인간으로 태어나 깨달음의 길을 몸소 걸으신 부처님의 여정은 순탄치만은 않았 습니다. 잘 아시사피 부처님은 태자 시절에 사

람이 태어나고 병들어 죽는 고통을 목도하고 왕자의 길을 버리고 출가했습니다. 히말라야 설산에서 6년을 고행하신 후 온갖 마군의 항복을 받아 위엄이 높고 바른 깨달음인 무상정등각을 성취하셨습니다. 그 후 평생을 길 위에서 설법과 교화에 매진하시다가 길 위에서 열반에 드셨습니다. 부처님 육신은 사라졌으나 그 가르침은 면면히 계승되어 오늘에 이르렀고 지금도 감로 법문은 항상하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지나신 길을 되새기며 우리 교도님들도 더욱 분발하시어 정진 수행하시길 바랍니다. 이와 함께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의 법등을 세상에 널리 전하는 일에도 힘써야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부처님 오신날을 경축하오며 불자들의 가정에 부처님과 관세음 보살님의 대자비 광명이 항상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읊마니 반메후.



### 우리들 존귀하니 아끼고 사랑합시다

■ 관음종 총무원장 흥파 스님

인연이 지중하신 불자 여러분! 환희로운 마음으로 부처님 강탄을 봉축합니다.

부처님께서는 태어나자마자, 룸비니동산에서 일곱 발자국 걸어가서 오른손은 하늘을, 왼손은 땅을 가리키며, "천상천하 유아독존 삼계개고 아당안지(天上天下唯我獨尊 三界皆苦 我當安之)"라고 외치셨습니다.

요즘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고 하면 내가 이 세상에서 내가 제일 최고이고, 독불장군으로 잘못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본래의 뜻은 우주 만물 중에서 내가 가장 존귀한 존재라는 뜻입니다. 즉 인간의 존엄한 실존성을 뜻하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우리를 스스로를 존귀하게 생각하고, 아끼고, 사랑해야 합니다.

이렇게 인연이 지중한 나는 그리고 우리들은 고통 속에서 헤매는 모든 중생을 구제 하리라는

대자비심을 내야만 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이 땅에 강탄하신 뜻은 내가 이 우주에서 가장 숭고함을 깨달고, 가장 존엄한 내가 중생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하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알려주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불자들은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내가 이 세상에서 독불장군이 아닌 가장 존귀한 존재로 살아야 하겠습니다. 그것이 부처님을 경외하는 일이며, 이것이야말로 부처님께 올바른 예배하는 것입니다.

불자 여러분! 그리고 시민 여러분! 어려움 속에서라도 자신의 가치를 잃지 마십시오. 부처님이 강탄하시며하신 첫 말씀의 진정된 뜻을 바로 알고 실천합시다.

우리 모두 부처님의 강탄을 봉축합니다.



### 마음 평온하면 부처님은 곁에 있다

■ 해초 스님 태고종 종정



빛의 나라 동쪽 땅 푸른 언덕 우리나라

집집마다 향과 등불과 부처님의 깃대 모시는 풍속 일천 칠백성상 이룩되어 곳곳에서 들려오는 법패와 종과 바라소리 온 나라에 울려 퍼지니 슬픈 사람 슬프게 바다를 향해 울고 기쁜 무리 기쁘게 땅을 향해 웃으면서 또 한 성상 보내는 가운데 우리 부처님 오셨습니다.

남의 말도 잘 듣고 생각 깊이 하여 마음에 들게 말하는 법 익혀서 듣는 마음 평화롭게 하면 어느 틈에 우리 부처님이 곁에 와서 활짝 웃으실 것입니다.

### 삼세 불은과 사대은혜에 보답하길

■ 도훈 정사 진각종 총인



오늘은 시방삼세와 육대본체로 계시는 법신 부처님께서 일대사의 인연을 갖고 석가화현으로 이 땅에 오신 날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유정들이 받고 있는 고히의 중생고를 떠나게 하고, 안락한 피안의 세계에서 살게 하기 위하여 우리가 사는 이 세계를 선택하신 것입니다. 불조의 교법 가운데 불생불멸의 수승한 가르침이 있습니다.

불생불멸의 이치를 깨닫게 되면 우주 대자연의 진리와 인생의 진리를 함께 깨닫게 됩니다. 모든 불자와 인류가 중생번뇌의 어리석음을 벗고 열반의 깨달음에 이르는 전미개요의 경지에서 불자불행과 무량선행의 두터운 신행을 실천하면 이 세상은 곧 불국정토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불자는 위에 설한 바와 같이 여실지전의 등불을 밝혀서 탐진치삼독을 여의고 지혜와 자비 그리고 용맹을 실천하여서 삼세 불은과 사대은혜에 보답하는 진실한 불자가 되기를 간절히 서원합니다. 이를 바로 깨쳐 부처님오신날 수행 정진하는 불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 정토로 만들 것을 다짐하는 날

■ 자승 스님 조계종 총무원장



꽃은 잎이 되고 그 잎은 다시 꽃이 되는 5월입니다. 낮에는 신록이 산하를 장엄하고, 밤에는 연등이 천지를 밝히니 천등만화가 부처님오신날을 환희로움으로 경하합니다.

구름이 겹으로 가려도 태양은 반드시 출현하듯이 어둠 속에서도 지혜구슬은 빛나기 마련입니다. 인간과 자연이 조화로운 공주(供住)를 위하여 등불을 대강(大江)에 걸고 국민을 받들 주는 공복(公僕)을 향한 등불을 밝히며 종교 간의 화합을 위하여 삼소(三笑)등불의 심지를 돋우어 재삼 점등합니다.

천안함 희생자들의 극락왕생과 유가족의 청안을 기원드리며 더불어 걱정해 주시고 함께 어려움을 나누어 주신 모든 국민들은 이 공력으로 원하는 바 모든 일을 뜻대로 이루시길 지심축원드립니다.

사부대중은 스스로를 등불삼고 부처님 가르침을 등불삼아 여일(一如)한 정진과 자비로운 보살행을 통하여 사바세계를 정토로 만들 것을 다시 한 번 다짐하는 날입니다.

### 세상은 기쁜 것, 마음 모아 합장

■ 정산 스님 천태종 총무원장



거룩하신 부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날입니다. 하늘에서 꽃비가 내리고 땅에선 산천초목이 춤을 추며 부처님 오심을 기뻐하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누구나 다르지 않음을 세상에 알려 주셨습니다. 나와 내가 다르지 않고 우리가 다르지 않으며 더 나아가 부처와 중생이 다르지 않아 일체중생이 다 나의 아들이니 열어 보이겠습니다.

몸으로 태어나 늙고 병들어 죽고, 마음으로는 걱정과 슬픔, 고통과 괴로움으로 응어리진 우리 중생에게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본래 늙을 것도 죽을 것도 없는 영원한 생명임을 가르쳐 보여주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부처님께서 이 땅에 오시어 開示悟入하신 일대사의 인연입니다.

불자 여러분, 사월초파일, 꽃바람에 타고 실려 온 이 거룩한 소식에 우리 모두 마음 모아 합장합시다.